

기본을 알고 기본에 충실하는 안전한 현장

W 윤암건설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

태양이 이글댄다.

모든 것을 태워 버릴 듯 강렬함에 대지 위에 모든 것은 힘에 겹다.

그러나 대전 도룡동에서 주식회사 윤암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주상복합 신축현장(이상호 현장소장)에서는 안전을 기반으로 한 무재해 무사고로 최고의 아파트를 탄생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2005년 10월에 착공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곳 현장은 2008년 12월이면 대망의 무재해 준공이 실현된다.



기본에 충실한다 ■■■

운동이든, 공부든, 건설현장이든 그 어떤 것을 불문하고 기본이 잘 갖추어져야 마음대로 거침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상호 현장소장을 비롯해 이 곳 사람들의 생각이다.

안전하고, 깨끗하고, 정다운 현장이라는 기본 이념도 기본에 충실하기 위한 이곳 현장의 안전경영 방침이기도 하며, 산업재해예방의 원동력이기도 하다.

여기에 철저한 사전 안전성 확보와 정리정돈, 미소 짓기 등이 있다.

안전성 확보는 공사 착수하기 전 위험사항 유무와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도면과 가설계획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때 작업에 임하는 것이라면, 정리정돈은 현장 내 도구, 기구, 가설자재, 협력업체 지입자재 등을 항상 깨끗이 청소하는 습관으로 근로자가 마음 놓고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건설현장 사람들이 언행이 거



▲ 이 상 호 현장소장

칠다보니 오해도 불러 일으켜 안전사고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소를 잃지 않도록 하는 미소 짓기를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이른 아침 큰소리로 인사하기는 열린 마음으로 밝고 명랑한 현장 만들기에 모두가 하나가 되고, 나의 안전이 동료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안전 활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안전의 중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으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현실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으로 근로자에게 접근하고, 근로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안전 활동으로 안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이곳 현장은 안전의 기본에서 무재해 준공의 해법을 찾고 있다.

대전에서 최고층 현장, 대전에서 최고의 안전으로 시공 ■■■

대전에서 최고층(39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에 최고의 안전으로 무재해 시공이 한창이다. 그동안 일반 아파트 현장에서 해왔던 갱폼과는 달리 한단계 Up Grade된 K.G.B Formwork System을 적용한 안전시설은 풍하중(45m/sec)을 고려한 설계와 폭 2m의 안전한 작업발판, 낙하 위험이 없고 밀실한 작업발판으로 낙하·비래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다.

위험을 Zero화 하는 시설과 함께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빈틈이 없는 이곳에 주류관리가 인상적이다.

현장 식당에 주류는 일체 반입하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하고, 작업 시작전·중의 음주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므로써 음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지구의 환경 파괴로 뜨거웠던 올 여름은 현장의 근로자에게도 버티기 힘든 날이다.

근로자 일인에게 식염포도당을 지급하고, 현장 입구 및 식당에도 비치하여 주기적으로 1~2알을 먹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수대를 설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당 내·외부에 방역 활동을 하였 고, 근로자의 건강상태 파악을 위해 종합병원 및 산업안전보건협회와 협의하여 근로





자의 정기건강진단으로 근로자의 건강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무재해 준공을 위해 10분 더 ■■■

이 곳 현장에는 무재해 준공을 위한 “10분 더”가 있다.

모든 활동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자세인 “10분 더”는 출퇴근, 안전점검, 안전순찰, 지적확인 및 안전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자율안전이다.

“10분 더”는 이른 아침 10분 먼저 나온 현장소장을 비롯해 안전관리자들이 안전조회장으로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밤사이 안녕 하셨는지요?”로 즐거운 하루를 시작한다. 이처럼 내가 10분 먼저, 10분 늦게라는 자세로 스마트시티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준공하는 그날까지 이끌고 간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운암건설 가족 모두는 안전관리자가 되고, 안전교육, 청소 및 정리정돈,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의 기본을 충실히 지키며 “안전은 생명이다”라는 철저한 마음가짐으로 무재해로 향한다. 

〈최종덕 기자〉